

黃昏이바다가되여(詩)

하루도 검푸른 물결에

흐느적 잠기고…… 잠기고……

저—웬 검은고기떼가

물든 바다를 날아 橫斷하고,

落葉이된 海草

海草마다 슬프기도 하오.

西窓에 걸린 해말간 風景畵,

웃고름너어는 孤兒의 설음

이제 첫航海하는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나딩구오…… 덩구오……

黃昏이 바다가되여

오늘도 數많은 배가

나와함께 이물결에 잠겨슬 게오.

황혼이 바다가 되어

하루도 검푸른 물결에

흐느적 잠기고…… 잠기고……

저—웬 검은 고기떼가

물든 바다를 날아 횡단할꼬.

낙엽이 된 해초

해초마다 슬프기도 하오.

서창에 걸린 해말간 풍경화

웃고름 너어는 고아의 설음

이제 첫항해하는 마음을 먹고

방바닥에 나딩구오…… 덩구오……

황혼이 바다가 되어

오늘도 수많은 배가

나와 함께 이 물결에 잠겼을 게오.